

지금은 함께 뛰어야 할 때이다.

작성일 : 2010. 03. 30. (화)

작성자 : 이수정 (부산 주믿음교회, 치어)

주님께서 함께 뛰어 주실 때, 저도 함께 발 맞춰 뛰어
야겠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. 그때 주님께서
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.

지금은 내가 행해야 할 때이다.

나 예수가 행하여도 따르는 자 없으면 빛을 못 받
한다.

또, 너희가 아무리 행하여도

나 예수가 행할 때가 아니면 빛을 잃게 된다.

나의 때에 너희가 행해야 한다.

+극과 -극이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듯,

뇌가 지시를 해도 지체가 움직여야 역사가 일어나
듯

그러하다.

내가 행하는 순간에 너희도 재빨리 행해야 한다.

그리해야 역사가 이루어진다.

나 예수가 아무리 행하여도

너희가 모르고 잠만 잔다면 역사가 이루어지겠
냐?

당연한 이치이다.

나와 네가 함께 소통하며

함께 행해야 역사를 이룰 수 있다.

지금이 나 예수가 강하게 역사하는 때이고,

그렇다면 너희도 뛰어야 할 때이다.

나 예수는 행하는 자와 함께 한다.

행치 않는 자와 함께 할지라도

나 예수가 빛나지 않게 된다. 빛을 잃어 가려지게
된다.

행하는 자와 함께 할 때 나 예수가 더 빛을 발하게
되고

나의 역사함에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.

지금이 그러한 때이다. 지금이 그러한 순간이다.

세상 향해 나 예수의 빛을 발할 때이고

그 빛으로 생명들을 이끌어 와야 할 때이다.

나 예수와 너희가 호흡하며 발 맞춰가야 한다.

나 예수와 너희가 2인 1조와 같다.

하나, 둘 발 맞춰가야 한다.

그리고 너희 안에서도 모두가 2인 1조이다.

서로 발 맞춰 앞으로 갈 때이다.

어느 한쪽이 더 앞서 가거나 멈추면 무너지고 만다.

발맞춰 가자.

천국까지 이르는 달리기이다.

천국을 이루는 달리기이다.

서로의 손만 잡고 서로만 의지하며,

함께 호흡하며 해 나가자.

알겠지? 진정 그리 해야 해.

나 예수는 그러한 자 기다린다.

파이팅! 응원도 해 줄게. 나와 같이 하자.^^

사랑해. 나의 반쪽!

너의 반쪽 나 예수가.